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7일 월요일 음 5월 15일 (7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8℃, 낮 최고기온은 23~26℃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1.5m로 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0%
20%	성 산	0%
20%	고 산	0%
20%	서귀포	0%

	해뜸 05:24 / 해짐 19:46	달뜸 19:41 / 달짐 05:11
물때	만조 10:14 / 23:23	간조 05:09 / 16:55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20/26℃
모레	구름 많음	20/25℃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주의	매우높음

월드뉴스

브라질, 내년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 될 듯

중국 수출 증가 영향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면서 브라질이 내년에 세계 최대의 대두 생산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뉴스포털 UOL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올해 1억1700만t에서 내년에는 1억2300만t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대두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올해 1억2360만t에서 내년에는 1억1200만t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브라질은 지난해 8360만t의 대두를 수출해 2017년 대비 22%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6880만t으로 2017년보다 30%가량 늘어난 결과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한 이후 브라질은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증가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대두 수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은 각각 642억 달러와 288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7년과 비교해 대중 수출은 35.2%, 대미 수출은 7.1% 늘었다. 브라질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26.8%로 가장 높고 미국은 12%로 2위였다.

지난해 수입 역시 중국과 미국이 1~2위를 차지했다. 브라질의 수입액은 중국 347억 달러, 미국 290억 달러였다. 2017년보다 각각 27.1%와 16.6% 증가했다.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이 19.2%, 미국이 16%였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용구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진 선 희
교육문화체육부장

문화적 다양성 인정받은 해녀 유산, 획일성으로 답하나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정의한 '사투리(방언)'다. 1989년 나온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었다. 지금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어를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라고 달리 풀어놓았지만 일찍이 표준어에 대응한 방언은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

2007년 제주에서는 가쁜 숨을 쉬고 있는 제주어를 살려보자며 전국에서 처음 제주어 보전·육성 조례를 만들었다. '왜 제주어인가'를 물었을 때, 흔히 '아래아' 등 중세 고어가 살아있다며 그 가치를 높이 매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문화 다양성이다. 섬 지역인 제주는 뭍과 다른 언어 유산을 지녔고 거기에 우리네 삶의 방식이 있다. 2001년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발표된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이 밝혔듯,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도록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주어 어휘 하나하나에 제주사람들의 개성이 담겨있고 그것들이 일상에서 쓰이고 있을 때 한국어는 더 풍부해진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방언도 다르지 않다.

제주어 이야기를 꺼낸 건 제주도의 '제주해녀상 표준모델 개발' 소식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주 보도자료에서 각양각색인 제주해녀상의 통일된 디자인을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해녀상을 부산 영도구와 독일 로렐라이시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수의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 작가를 뽑아 해녀상을 세울 수는 있다. 하지만 해녀의 고유성을 보존하겠다며 물소중이 입은 청춘 해녀의 표준모델을 애써 제시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제주조각가협회 임원들은 지난 14일 표준모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그 발상이 대단히 위험하고 우려스럽다"며 "작가의 창작범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민간은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행정이 시행하면 이미 '표준'과 '비표준'으로 구분된다.

제주해녀문화가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배경엔 해당 유산의 우수성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이 있었다. 금메달을 목에 걸어준 게 아니라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식, 선배 해녀에서 후배 해녀로 이어지는 잠수기술의 전승,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지향하며 살아온 방식 등을 인정한 거였다. 문화재청 역시 이듬해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단순히 물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해녀상을 김만덕 표준영정처럼 고증을 거쳐 재현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 걸까. 일제 수탈에 맞선 투사, 한 집안의 살림을 책임져온 가장, 밭일까지 도맡는 농부 등 해녀의 이미지는 단일하지 않다. 나잠했던 먼 과거에서 고무옷 입은 오늘날 해녀까지 복장이 변해왔고 80대에도 물질하는 이들이 있는데 표준모델의 고유성 운운은 설득력을 잃는다. 행정이 나서서 해녀가 주는 문화적 상상력을 막아선 안될 일이다.

열린마당

서귀포고등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강 태 완
서귀포고등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장

서귀포고등학교는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이한다. 서귀포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공립 남자 인문계교등학교 설립 필요성에 따라 1969년 3월 25일 서귀포중학교 교실을 공차해, 44명 1학급으로 개교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현재는 21개 학급의 618명의 재학생과 1만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의 중축적인 공립 고등학교로 성장했다. 이제 서고는 반백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학교가 되어 도전적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서고 개교 50주년은 과연 서고인들의 성과는 무엇인지,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귀포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미래 발전을 지향점으로 하여 50주년기념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일주일 간 '서귀포에 부는 바람'이라는 주제로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동문예술인 전시회를 가졌다. 서귀포 시민들과 예술작품을 통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지난 9일은 서귀포교육발전기금과 공동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서귀포교육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와 대안들이 제시됐다. 그리고 '비전 선포식 및 동문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정성중 서고 교장을 비롯한 많은 도내 주요 인사들과 동문 국회의원, 도의원을 비롯한 600여 동문 및 가족이 참석해 대규모 기념행사를 가지고 서고인들의 의지를 선언했다. 열린 마음으로 미래 100년을 향해 사회에 공헌하는 선도자가 될 것을 선언했다.

서고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하다, 즉 믿음직하다는 인식이 있어왔다. 일반화하기는 근거가 약하지만 사실 이런 신뢰의 이미지는 사회가 안정화되고 성숙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서고인들은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발전에 선도적인 공헌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청년의 꿈을 앗아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김 주 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지난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1205곳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소문만으로 무성했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공공기관 고위직의 자녀와 친인척은 신규 채용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이 됐다. 또한 만 29세 이하 청년층에게는 10% 가산 점을 줘야 하는 규정까지 어겨가며 합격자 순위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날 20대 청년들은 전례없는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용 비리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범죄이다. 다른 어떤 부문보다 공정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에서부터 원칙이 무너지고 반칙이 난무한다는 사실은 청년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좌절하게 만든다. 따라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난 속에서 구직을 위해 애쓰는 청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근절돼야 한다.

채용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 채용 특혜를 제한하도록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여 출신지, 학력 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진다. 또한 제주도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통합 채용을 실시한다. 기존에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시행했던 채용 과정에서 벗어나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공정한 절차로 인재를 채용한다.

더불어 우리 모두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는지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돼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다주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맛과 향이 좋은 감귤(만감)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
➡ 하하농법만이 해결책이다
당 — H2O+CO2+햇빛(광)조화 => 당상승
◎ 꽃이 성냥개비 ◎ 꽃이 콩알 ◎ 2차낙과 후 일주일 간격 2회
◎ 과일색이 탈색될때 3회 => 해피한그린 + 글루칼 엽면시비
양낭(갑) — 내피를 양낭막 또는 양낭이라 하는데
양낭을 부드럽고 씹히는 정도가 가볍게 하려면 =>
봄순이 녹화되면 첫 세근(뿌리)발생시 자연(천연) 가리가
9% 들어있는 하이휴믹 토양관주
향 — 감귤(만감)을 먹고나서 여운의 향을 입안에 퍼지기 위해 착색시 =>
해피한그린 + 글루칼 + 팡이엔 을 2번 엽면시비
해피한그린 이온이 3개인 희토 원소가 들어있는 복합생육조절제
글루칼 포도당 칼슘(글루콘산)으로 높은 흡수율을 자랑
팡이엔 고기능 식이유황(MSM)함유된 환경친화적인 고기능 생육 촉진제
하이휴믹 알카리성 천연가리(K-부식산)로 친수성이 뛰어난 포타슘 휴믹산
곰탱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완효적 질소비 효과 / 석회효과 / 토양곰팡이 살균 방제효과
선충 밀도의 저하 / 페르카® / 잡초의 경감
토양소독 효과 / 가축의 기생충 방제
유기물의 부숙 촉진 / 토양의 비옥화 / 토양 미생물 활성화
사용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취급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엽면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 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